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II*

- 노인의 학대와 방임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lder Mistreatment II: Empirical Investigation of Elder Abuse and Neglect among the Elderly*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강사 송현애

성신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강사 전길양

Dept. of Home Management Sungkyunkwan University
Lecturer: Hynnae Song

Dept. of Home Management Sungshin University
Lecturer: Gilyang Jun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 and experience of the elder mistreatment among the elderl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160 elders with family members through questionnaires. The major finding is that the concept on elder mistreatment of the old people is found for the most part psychological abuse or neglect. And, when the degree of family support about the elderly is high, the experience of the elder mistreatment appears low. Therefore, family support may be higher to prevent elder mistreatment. Also, social support in the side economical, physical or emotional services may help to bring down the elder's disability contributing to the elder mistreatment.

* 본 연구는 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 주최 학술세미나 : 가정폭력에 관한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발표한 원고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임.

I. 문제제기

노인홀대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늦게 관심을 받은 가정폭력의 한 분야이다. 즉 노인에 대한 학대와 방임은 사회적으로 가정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의 다차원적인 형태와 그 정도에 대해 폭넓은 개념화가 이루어지면서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가 1960년대에, 아내학대가 1970년대에 크게 부각되었으며 노인학대에 관한 문제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가정폭력 방지법의 입법화가 추진되면서 노인홀대에 대해 매스컴이나 학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누가 노인을 모실 것인가?',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있다' 등 매스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기획 프로그램들은 이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나타내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노인홀대의 문제는 노인인구의 절대수와 비율의 증가라는 측면과 크게 무관하지 않다. 노인인구의 증가 및 고령화는 노인부양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의존성의 증가는 노인의 홀대 가능성을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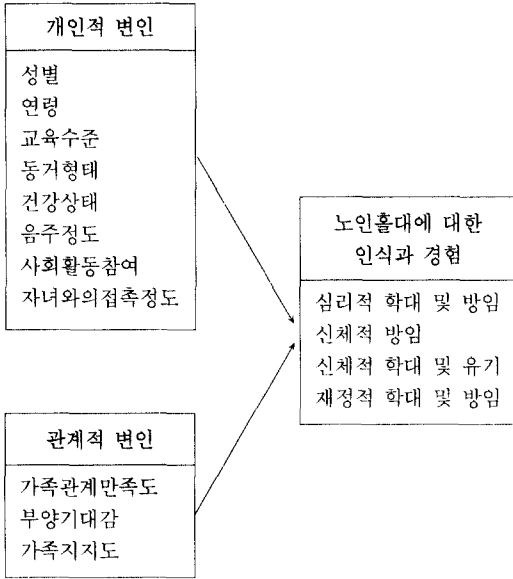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6.1%(통계청, 199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7.1%로 전망되고 있어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를 예고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노인홀대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현실적인 인식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매스컴에서 나타난 노인의 유기나 방치에 관한 사례들(이해영, 1996; 한동희, 1996)은 우리나라에서도 노인학대나 방임의 문제가 정도나 유형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적지않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노인홀대의 문제는 다른 가정폭력의 속성과 마찬가지로 가족내 사적인 영역의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노출되기 보다는 은폐될 가능성이 더 크다. 특히 가족의 부끄러움이나 갈등이 노출되는 것을 매우 꺼려하는 우리의 문화적 배경은 우리나라에서 노인홀대가 더욱 외부로 드러

나지 않게 하고 있다(Moon, et. al, 1993). 이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홀대가 가정내 폭력의 은폐적 속성에 더하여 문화적 배경의 특성으로 인해 보다 장기화, 잠재화 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더욱이 노인홀대는 대체로 반복되는 특성이 있으며 주요한 환경적 변화나 개입이 있지 않는 한 계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심각한 질병, 위기, 시설의 입소나 사망으로 나타날 수 있다(Canadian Task Force on the Periodic Health Examination, 1997).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노인홀대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노인홀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진단하기는 쉽지 않다. 노인학대는 80%정도까지 그 문제를 감추려는 사회적 경향을 보이고 있어 잘 보고 되지 않기 때문이다(Shiferaw, et. al 1994). 이는 노인홀대를 연구하는데 정보획득의 어려움이 있고 부작위 샘플조사나 통제집단 연구를 통한 경험적 연구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예측하게 한다. 실제로 노인홀대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재고찰된(review) 논문이 실제적 조사를 통한 경험적 연구보다 더 많으며 또한 조사대상자로서 학대받는 노인과 그들의 가족보다는 오히려 건강이나 인간서비스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Pillemer, 1993). 즉 노인홀대에 관한 많은 연구(Hwalek, et.al, 1996; Quinn & Tomita, 1986; Korsberg, 1988)들은 이미 노인에 대한 폭력이 널리 퍼져있으며, 가족원들이 노인홀대의 주된 가해자로 밝히고 있지만 가족부양자에 의한 폭력에 대해서는 신뢰할만하고 타당한 경험적 조사가 드문 편이다(Pillemer & Suitor, 1992).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노인학대나 방임에 관한 개념과 정의조차 현실적인 문제로 드러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기초적인 연구도 매우 드문 실정이다. 노인홀대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부족은 노인과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법적 중재나 대책 마련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노인홀대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정의되고 이해 될 때 노인홀대의 감소나 예방을 위한



〈그림 1〉 노인홀대에 대한 연구모형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결국 노년기 가족의 삶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내에서 발생하는 노인홀대에 대한 노인의 인식과 경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념과 인식의 정립에 도움을 주고 노인홀대의 예방 및 대처 방안의 탐색을 위한 경험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노인홀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전반적인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노인의 노인홀대 경험에 미치는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노인홀대는 첫째, 노인 자신의 가정이나 부양자의 가정에서 배우자나 형제자매, 자녀 등 노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홀대가 이루어지는 가정내 노인학대, 둘째, 요양원이나 집단홈 등의

주거시설에서 노인에게 보호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닌 유급 부양자나 전문가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시설에서의 노인학대, 셋째, 신체적 및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자신을 돌보는데 필요한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자기방임 또는 자기학대 등 3가지 기본적인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Johnson, 199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나 희생자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내 노인홀대에 초점을 두고 노인홀대의 인식과 경험 및 관련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홀대를 정의하는 기준은 학자들에 따라 다르고 문화적인 차이에 의하여 지각되는 개념도 다르다(표 1 참조). 아직까지 노인홀대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의견의 일치라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노인홀대에 대해 분명하게 합의된 정의는 없는 상태이다.

즉 〈표 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학자들마다 노인홀대의 개념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학대(abuse), 방임(neglect), 홀대(mistreatment)라는 용어조차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 아쉽게도 연구 결과들간의 비교, 검토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대체로 노인홀대에 대한 정의는 신체적인 학대, 심리적이거나 정서적·언어적 학대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불충분한 주거환경, 물질적 학대, 의료적 학대, 경제적 착취, 그리고 성적 학대를 노인학대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내쫓기거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다른 환경에 있도록 강요되는 것과 같은 노인 개인의 인권의 침해도 노인홀대의 한 영역에 포함(Quinn & Tomita, 1986)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노인학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안에 방임의 의미를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학대와 방임은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나타난다. 학대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노인에게 해를 가하는 과정이라면 방임은 노인의 행복이나 건강에 필요한 것을 주지않는 것을 말한다(Rosenblatt, 1997). 대체로 가족들의 관심의 결여가 방임으로 지각되는데, 부양자가 노인에게 제공하는 보호수준과 그에 관한 노인의 기대 수준에서

의 차이가 방임으로 이끌 수 있다. Rosenblatt(1997)는 노인학대와 방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노인학대(elder mistreatment)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가족내 다른 폭력처럼 노인학대는 지극히 복잡해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노인학대에 관련되는 요인은 희생자(노인)와 가해자(부양자)의 특성, 그리고 이들 사이의 관계적 특성에서 살펴 볼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측면에서의 노인학대 관련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¹⁾

어떤 노인도 학대나 방임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소득수준이 높은 닷넷, 어떤 문화적, 인종적 집단에 속해 있는, 남자건 여자건, 건강이 좋은 나쁜 것 가까운 누군가에 의해 학대를 받을 수 있다(Alberta Family and Social Services, 1997). 그러나 일련의 연구 결과들과 일선의 서비스 제공자들의 경험에 근거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노인의 특성들이 노인학대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 학대받는 노인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다. 노인여성은 학대행동에 덜 저항하는 경향이 있고, 성적학대에 더 취약하다(Korsberg, 1988). 특히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어 남편을 사별하고 홀로 10여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 노인 여성들은 신체적, 지적, 경제적, 사회적 능력이 제한됨으로써 더욱 학대의 대상이 될 수 있다(윤진, 1994).

고령: 75세이상의 후기 고령자(old-old)가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다. 나이가 들수록 육체적, 정신적 손상이 증가하여 가족으로부터 보다 많은 원조를 받아야함에 따라 학대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Johnson, 1995). 노인의 생애주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능력과 만성적 질환을 가진 노인들에 대한 의료적인 보호가 증가되고, 이러한 부양자에 대한 노인의 증가된 의존도는 부양자들을 스트레스적 상황으로 이끌 수 있다.

개인적인 문제들: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건강이 좋지않은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들보다 더 학대되는 경향이 있다(Steinmetz, 1993). 우리나라는 현재 65세 이상 인구중 90만명(노령인구의 약 33.5%)의 노인이 관절, 심장병 등 만성 퇴행성 질환

으로 식사, 목욕, 병원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제 3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1997). 이러한 신체적, 생리적 건강쇠퇴 및 치매나 알콜중독과 같은 정신건강장애는 성인자녀와의 갈등을 심화시켜 원만한 가족관계를 어렵게 하고 노인을 학대상황에 직면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고립: 학대받는 노인들 중 대다수가 친구나 이웃, 가족원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Public Legal Education Association of Saskatchewan, 1997). 노인이 가족이나 친지, 조직 등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접촉이 없이 고립되어 있는 것은 노인의 욕구가 적절히 충족되지 못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인의 사회적 고립은 학대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킨다. 특히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외상상태에 있는 노인들은 더욱 완벽하게 고립될 수 있다. 배우자 학대로 고통받는 여성들은 적어도 학대상황에서 제발로 걸어나갈 수 있고, 아동의 경우는 학교나 의사, 다른 성인들과 정기적인 접촉의 기회가 많아 학대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있으나 심신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더욱 외부와 고립되기 쉬어 노인학대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높다(Rosenblatt, 1997).

원만하지 못한 성격: 가족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을 가진 노인이 더 학대되는 경향이 있다. 학대받는 노인의 성격은 고집이 세고, 말다툼을 좋아하고, 통제하기 어렵거나 공격적이며 폭력적인 경우가 많다(한동희, 1996). 노인들이 부양에 대해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시하며, 부양자에게 지나치게 요구적일 때 부양자는 더욱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노인학대가 유발할 가능성을 높게 한다.

자기 탓에 빠져있는 노인들: 노인학대나 방임에 취약한 노인들은 특히 자기 탓에 빠져 있는 노인들로 나타난다(Quinn & Tomita, 1986). 노인이 자신에게 행해지는 학대에 대해 무조건 자기자신만을 비

1) 노인학대의 개념 및 유형, 가해자(부양자)의 측면에서 노인학대와 관련된 요인 및 특성에 대해서는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1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5권 3호)을 참조하시오.

<표 1> 국내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노인홀대의 개념

	신체적 학대	심리적/ 정서적학대	언어적 학대	경제적/ 재정적착취	성적 학대	노인의 권리침해	방입	자기 방입	비 고
Allen et al.(1983)	0	0		0					의료적 학대를 포함
Blakely & Morris(1992)	0			0			0		
Block & Sinnott(1979)	0	0		0					
Douglas et al.(1980)	0	0	0				0*		*적극적 방입, 수동적 방입
Godkin et al.(1989)	0	0		0			0*		*적극적 방입, 수동적 방입
Hickey & Douglas(1981)	0	0	0				0		*소극적 방입, 적극적 방입
House Select Committee on Aging(1981)	0	0		0	0	0	0	0	
Johnson(1995)	0						0		기타:나머지모든 학대
Lau & Kosberg(1979)	0	0	0	0		0		0	
Neale et al.(1996)	0	0		0	0		0		
O' Malley et al.(1983)	0	0		0			0		
Paris(1995)	0	0		0					*신체적 홀대, *심리적 홀대
Pillemer & Finkelhor(1988)	0	0					0		
Pillemer & Moore(1989)	0	0							
Quinn & Tomita(1986)	0*	0*		0		0		0*	*신체적방입, *심리적방입 *자기학대
Rosenblatt(1997)	0*	0*		0*		0			*신체적방입, *심리적방입 *경제적방입
Sengstock & Hwalek(1986)	0	0		0		0		0	*신체적 방입, *심리적 방입
Shiferaw et al.(1994)	0	0		0	0		0	0	
Susan(1992)	0	0		0			0		
서혜경(1995)	0	0		0	0		0		
이영숙(1997)	0	0	0						
이혜영(1996)	0	0		0			0		
최혜경(1993)	0	0	0	0	0	0	0	0	13개의 시나리오
한동희(1996)	0	0	0	0			0		

* 최혜경(1993), 김한근(1994), Neal(1996), Pillemer 등(1988, 1989), Steinmetz(1993) 등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연구결과 들을 분류 정리한 것임

난하고 무력감에 빠진다면 근본적으로 학대상황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노인의 의존성: 노인들의 장기적인 보호나 높은 의존도는 부양자들에게 스트레스나 좌절, 부담감을 경험하게 하며 이는 노인에 대한 학대와 방입을 이끄는 요인이 되고 있다(Steinmetz, 1993). 따라서 노인의 의존성이 높으면 홀대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측정도구의 구성과 내용

본 연구는 직접면접을 통한 질문지를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작성된 질문지는 노인홀대 인식 및 경험 척도, 가족관계만족도 척도, 부양 기대감 척도, 가족지지도 척도, 그리고 노인의 개인적 특성을 알

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각 척도의 구성 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인홀대 인식 및 경험 척도

노인홀대 인식 및 경험 척도는 선행연구들(Quinn, et al, 1986, Rosenblatt, 1997, 형사정책연구원, 1995)에서 노인학대 및 방임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을 참고로 하여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총 2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문항들이 어떠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탐색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eigen value가 1.0이상인 요인은 4개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요인 I은 심리적 학대 및 방임으로 명명되었으며, 요인 II는 신체적 방임, 요인 III은 신체적 학대 및 유기, 요인 IV는 재정적 학대 및 방임으로 명명되었다(각 영역의 내용은 표 5를 참조).

본 연구에서는 노인홀대 인식에 대한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크게 '홀대가 아니다'와 '홀대이다'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홀대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홀대인식의 경중을 알아보기 위해 '매우 가벼운'에서 '매우 심한'의 4점 리커트형으로 하였으며, 각각 1점-4점의 점수를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그 문항에 대해 심한 홀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한편, 노인홀대 경험의 측정은 노인홀대 인식문항에 근거하였으며 경험이 '전혀 없다'에서 '자주 있다'의 4점 리커트형으로 경험정도를 알아보았다.

노인홀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문항수 및 신뢰

<표 2> 노인홀대 인식과 경험의 문항수 및 신뢰도

	홀대 인식		홀대 경험	
	문항수	신뢰도	문항수	신뢰도
심리적 학대와 방임	9	.87	9	.85
신체적 방임	7	.86	7	.83
신체적 학대 및 유기	5	.80	3	.79
재정적 학대와 방임	5	.85	3	.83
전체		.92	전체	.91
계	26		22	

도는 다음과 같다(표 2).

2) 가족관계 만족도 척도

가족관계 만족도 척도는 배우자와의 관계, 아들과의 관계, 딸과의 관계, 며느리와의 관계 등을 묻는 총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형으로 1점-5점의 점수를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간의 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내며, Cronbach's α 값은 .84이다.

3) 부양 기대감 척도

노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부양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진길양(1993)의 연구와 Seelbach(1978)의 Filial Expectancy Scale(FES)을 변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형으로 1점-5점의 점수를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부양기대감이 높음을 나타내며, Cronbach's α 값은 .75이다.

4) 가족지지도 척도

노인들이 평소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고자 김정현(1995), 이영미(1995)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나의 가족은 내가 필요로 할 때 힘이 되어 준다' 등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은 4점 리커트형으로 1점-4점의 점수를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도가 높음을 나타내며, Cronbach's α 값은 .84이다.

5)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 노인의 일반적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 동거여부, 직업유무, 교육수준, 접촉정도, 자녀수, 종교, 건강상태, 음주정도, 사회활동참여 등의 변인들이 포함되었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한 후 설문지를 재조정해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1997년 4월 20일에서 5월 5일까지 유의표집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총 16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 package를 이용하여 변수의 특성에 따라 빈도, 백분율, t-test, ANOVA 및 상관관계 분석, Duncan's test,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집 단		N(%)
성별	남	78(48.8)
	여	82(51.2)
연령	60 - 64	25(15.6)
	65 - 69	37(23.1)
	70 - 74	47(29.4)
	75 - 79	28(17.5)
	80세이상	23(14.4)
동거형태	별거	45(28.1)
	동거	115(71.9)
	거의없다	5(3.2)
자녀와의 접촉정도	가끔있다	42(26.6)
	자주있다	87(55.1)
	거의매일	24(15.2)
음주정도	전혀마시지않음	77(48.1)
	비교적마시지않음	60(37.5)
	많이마시는 편	18(11.3)
	매우많이마심	4(2.5)
사회활동참여	전혀없다	21(13.1)
	1가지	84(52.5)
	2가지이상	55(34.4)
종교	무	51(31.9)
	유	109(68.1)
교육수준	무학	38(23.9)
	초등학교 · 서당	45(28.3)
	중학교	31(19.5)
	고등학교	24(15.1)
	대학이상	22(13.2)
직업	무	125(78.1)
	유	34(21.8)
건강상태	매우나쁨	19(11.9)
	건강치못한편	57(35.6)
	건강한편	69(43.1)
	매우건강	15(9.4)
자녀수	1명이하	9(5.6)
	2 - 4명	94(58.8)
	5명이상	57(35.7)
계		160(100)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노인홀대에 대한 전반적 인식 및 경험 실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노인홀대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과 경험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 두가지 측면의 조사를 통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들의 노인홀대의 개념 및 원인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연구자들은 선행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조사대상자들이 임의로 대답하고 지적인 내용을 유목화시켜서 분류하였다. 둘째, 척도화된 질문문항을 구성하여 조사대상자들의 노인홀대 여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1) 노인홀대에 대한 전반적 인식 실태

〈표 4〉는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노인홀대' 하면 우선적으로 떠오르거나 지각되는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 '노인홀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개방형 질문을 분석한 결과이다.

노인이 지각하는 노인홀대의 개념은 심리적 방임(36.7%)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심리적 학대(28.8%), 신체적 방임(10.2%), 재정적 방임(6.8%), 유기(5.7%), 신체적 학대(5.1%)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재정적 학대의 측면에서 노인홀대를 인식한 노인은 한명도 없었다. 즉 노인들은 재정적 학대나 유기, 신체적 학대 등과 같이 보다 심한 학대 내용보다는 정서적, 심리적 측면에서 노인이 겪는 경험인 심리적 홀대(65.5%)를 노인홀대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학대보다는 방임을 노인홀대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83%정도가 일반적 방임과 심리적 측면의 학대를 노인홀대로 지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노인들이 노인홀대 개념으로 지각한 구체적인 내

〈표 4〉 노인의 노인홀대 개념 인식(개방형 질문)

집 단	N(%)
심리적 방임	65(36.72)
소외	8(12.3)
무시	31(47.7)
무관심	26(40.0)
심리적 학대	40(28.81)
인격적 모독 및 불공손	19(37.2)
정신적 불편감 및 대화단절	21(41.2)
언어적 폭력	11(21.6)
신체적 방임	18(10.17)
신체적 학대	9(5.08)
재정적 방임	12(6.78)
재정적 학대	0
유 기	10(5.65)
기 타	12(6.78)

* 사례수(n=160명)가 차이가 나는 것은 복수응답 처리하였기 때문임

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들은 무시나 무관심, 소외로 나타나는 심리적 방임을 노인홀대로 지각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다. 이들 심리적 방임 영역 중에서도 노인을 무시하는 측면이 홀대이다라고 지각하는 빈도(47.6%)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무관심(40.0%), 소외(12.3%) 순서로 지각되고 있었다. 이는 기혼 성인 남녀가 심리적 방임 영역 중에서 무관심을 가장 높게 홀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많은 노인들은 단순히 “노인을 무시하는 것”, “노인의 의견을 묻지 않는 것”,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 “신경을 쓰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노인에 대한 배려없이 방치해 두는 것”, “무관심한 것”, “가족내 문제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 “소외되는 것”, “외롭게 하는 것”과 같은 심리적 방임을 노인홀대로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노인에게 귀찮은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박대나 구박, 압박을 가하는 것”, “서운하고 속상하게 하는 것”, “대화를 차단하거나 단절 시키는 것”과 같은 정신적 불편감 및 대화단절 측면과 “쓸모없게 여기

며 존경하지 않는 것”,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 “노인이라고 하고 싶은 말 못하게 하고 상대하고자 않는 것”, “공경하지 않고 멸시하는 것”과 같은 인격적 모독 및 불공손의 측면, “욕설을 하거나 심한 말을 하는 것”, “말을 함부로 하는 것”, “나쁘게 말하는 것”과 같은 언어적 폭력의 측면에서의 심리적 학대를 노인홀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노인들은 “밥을 안주고 돌보지 않는 것”, “빅을 것을 잘 안주거나 소홀히 하고 잘 보살펴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신체적 방임을 노인홀대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집안일을 많이 시킨다”, “때린다” 등의 신체적 학대 및 “노인을 버린다”는 유기의 개념 역시 홀대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 5〉는 척도화된 질문을 통한 분석의 결과이다. 대체로 노인들은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학대 및 유기의 문항들에 대해서 “홀대가 아니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낮아 이 영역을 가장 심한 노인홀대 측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노인이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주변의 물건을 집어 노인에게 던진다”는 문항에 대해서 “홀대이다”고 인식하는 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노인들이 제시된 각 문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노인홀대가 아닌 것으로 인식한 영역은 신체적 방임의 영역으로 나타난다. 특히 “며칠동안 노인을 혼자 남겨 두고 식구들끼리 여행을 간다”는 문항은 가장 노인홀대가 아니라고 인식한 문항이다. 즉 24.1% 정도의 노인이 홀대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노인들이 홀대라고 인식한 문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홀대인지를 파악해 본 결과, 신체적 학대 및 유기의 항목 중 “일정기간 동안 노인이 방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4점 만점에 평균 3.77로 응답하여 노인들이 이 문항을 가장 심한 정도의 홀대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신체적 방임의 문항 중 “틀니나 보청기, 돋보기 등 보조기구를 제 때에 마련해 주지 않는다”는 문항은 평균 2.00으로 응답하여 노인들이 가장 가벼운 편의 홀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표 5> 노인의 노인홀대 여부 인식(척도화된 질문)(N. %)

문항내용		홀대인식		
		홀대가아니다	홀대이다	평균
심리적 학대 및 방임	노인의 실수행동에 대해 주의하지 않는다며 고함을 지른다	10(6.3)	149(93.7)	3.11
	노인을 무시한다	6(3.8)	154(96.3)	3.17
	노인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집안일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21(13.3)	137(86.7)	2.48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노인앞에서 이야기 한다	6(3.8)	154(96.3)	3.05
	노인의 결점을 들추어내며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말한다	8(5.0)	151(95.0)	2.95
	노인에게 큰 소리를 지른다	5(3.1)	154(96.9)	3.25
	노인이 요구하는 것에 응해 주기는 하지만 말을 하지않고 의무적으로 할 일만 해주고 만다	22(14.0)	135(86.0)	2.15
신체적 방임	노인을 어른으로 대우하지 않고 어린애 취급한다	14(8.8)	145(91.2)	2.79
	노인에게 무리하게 많은 일을 시킨다	5(3.1)	155(96.9)	3.29
	몸이 아픈 노인을 의사에게 데리고 가지 않는다	17(10.6)	143(89.4)	2.62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제때에 먹도록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	29(18.1)	131(81.9)	2.07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식사시중을 해주지 않는다	7(4.4)	152(95.6)	2.99
	식사시간에 신경을 쓰지 않아 밥을 굶긴다	5(3.2)	152(96.8)	3.20
	틀이나 보청기, 돋보기 등 보조기구를 제 때에 마련해 주지 않는다	24(15.1)	135(84.9)	2.00
신체적 학대및유기	노인이 거처하는 방의 난방시설이 충분하지 못하다	14(8.9)	144(91.1)	2.73
	며칠동안 노인을 혼자 남겨두고 식구들끼리 여행을 간다	38(24.1)	120(75.9)	2.20
	노인이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주변의 물건을 집어 노인에게 던진다	2(1.3)	158(98.8)	3.68
	일정기간 동안 노인이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다	3(1.9)	156(98.1)	3.77
	노인을 밀거나 때린다	2(1.3)	157(98.7)	3.73
	노인을 남겨둔 채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간다	3(1.9)	157(98.1)	3.64
	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노인을 양로원에서 살게 한다	5(3.1)	155(96.9)	3.54
재정적 학대 및 방임	돈이나 보석, 가구와 같은 노인의 재산을 달라고 강요한다	10(6.3)	150(93.8)	2.93
	허락없이 노인의 재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다	7(4.4)	152(95.6)	3.13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용돈이나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다	5(3.2)	153(96.8)	2.92
	노인의 승락없이 노인의 집을 팔아 그보다 못한 곳으로 노인의 주거지를 옮긴다	6(3.8)	152(96.2)	3.38
	노인의 돈을 마음대로 꺼내어 쓴다	15(9.4)	145(90.6)	2.82

2) 노인홀대에 대한 전반적 경험 실태

본 연구에서는 척도화된 설문 문항을 통하여 노인들이 실제로 학대나 방임을 경험했는지 아닌지, 그리고 경험했다면 어느정도 경험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홀대 경험에 대한 응답범주에서 “전혀없다”를 제외한 나머지 세 범주의 응답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묶어 홀대 경험 유무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선행연구(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1994, 이영

숙, 1997)에서 사용된 방법이다.

전반적으로 노인들은 신체적 학대 및 유기 문항들에 대해서는 홀대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표 6 참조). 이에 비해 신체적 방임, 심리적 학대 및 방임 문항들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어 홀대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심리적 학대 및 방임 문항 중에서 “노인이 요구하는 것에 응해 주기는 하지만 말을 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할 일만 해주고 만다”는

〈표 6〉 노인의 노인홀대 경험 실태(척도화된 질문)(N, %)

문항내용		홀대인식		
		무	유	평균
심리적 학대 및 방임	노인의 실수행동에 대해 주의하지 않는다며 고향을 지른다	103(64.8)	56(35.2)	1.51
	노인을 무시한다	79(50.0)	79(50.0)	1.75
	노인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집안일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56(35.4)	102(64.6)	2.09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노인앞에서 이야기 한다	108(67.9)	51(32.1)	1.42
	노인의 결정을 들켜내며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말한다	100(62.9)	59(37.1)	1.53
	노인에게 큰 소리를 지른다	88(55.3)	71(44.7)	1.71
	노인이 요구하는 것에 응해 주기는 하지만 받을 하지않고 의무적으로 할 일만 해주고 만다	45(28.3)	114(71.7)	2.11
	노인을 어른으로 대우하지 않고 어린이 취급한다	97(61.0)	62(39.0)	1.56
신체적 방임	노인에게 무리하게 많은 일을 시킨다	114(71.7)	45(28.3)	1.34
	몸이 아픈 노인을 의사에게 데리고 가지 않는다	69(43.1)	91(56.9)	1.91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제때에 먹도록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	57(35.8)	102(64.2)	2.06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식사시중을 해주지 않는다	80(50.3)	79(49.7)	1.69
	식사시간에 신경을 쓰지 않아 밥을 굶긴다	95(60.1)	63(39.9)	1.55
	틀이나 보청기, 돋보기 등 보조기구를 세 때에 마련해 주지 않는다	86(54.4)	72(45.6)	1.74
	노인이 거처하는 방의 난방시설이 충분하지 못하다	90(57.0)	68(43.0)	1.58
	머칠동안 노인을 혼자 남겨두고 식구들끼리 여행을 간다	75(47.5)	83(52.5)	1.86
신체적학대 및 유기	노인이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주변의 불건을 집어 노인에게 던진다	139(88.0)	19(12.0)	1.15
	일정기간 동안 노인이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다	142(89.3)	17(10.7)	1.12
	노인을 밀거나 때린다	134(84.3)	25(15.7)	1.18
	노인을 남겨둔 채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간다	—	—	—
	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노인을 양로원에서 살게 한다	—	—	—
재정적 학대 및 방임	돈이나 보석, 가구와 같은 노인의 재산을 탈라고 강요한다	121(76.1)	38(23.9)	1.29
	허락없이 노인의 재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다	—	—	—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용돈이나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다	81(53.2)	74(46.8)	1.70
	노인의 승락없이 노인의 집을 팔아 그보다 못한 곳으로 노인의 주거지를 옮긴다	—	—	—
	노인의 돈을 마음대로 꺼내어 쓴다	109(68.6)	50(31.4)	1.42

문항은 경험이 있는 비율이 71.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인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집안일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심리적 학대 방임 문항과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제때에 먹도록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는 신체적 방임 문항은 각각 64.6%, 64.2%로 경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러한 문항은 비교적 부양환경에서 보다 쉽게 나타나기 쉬운 상황이며 홀대인식의 정도도 낮은 편에 속하는 내용들이

다. 따라서 노인들이 경험하는 확률이 높은 경우라 할 수 있다. 홀대경험 정도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위의 세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2점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노인들은 홀대가 있다하더라도 거의 경험이 없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심리적 학대 및 방임, 신체적 방임의 경우는 전혀없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낮아 노인들이 부양상황에서 경험하는 가능성이 보다 높음을 볼 수 있다.

3) 노인의 노인홀대 원인 인식

〈표 7〉은 노인홀대의 원인에 대한 노인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노인에 대한 홀대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노인들은 홀대의 발생원인을 노인의 측면에서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36.6%로 가장 높았다. 즉 홀대의 원인을 노인자신의 탓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부양자 측면에서(28.7%), 사회구조적 측면에서(25.0%), 관계적 측면에서(9.7%)의 순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들은 홀대원인을 “경제력이 없거나 나이가 많고 건강이 나빠서”, “생활능력이 없어서” 등 노인자신의 무능력에서 홀대가 일어난다고 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학대의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입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본 형사정책연구소의 연구(1995)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자신의 무능력’ 때문이라는 사람이 53.8%, 상대방의 부도덕함 때문이 20.8%, 전반적인 사회풍토 때문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19.2% 등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피해의 원인이 사회에 있기보다는 피해자인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리고 노인이 잔소리가 많거나 고집을 부리는 등의 노인의 성격적 특성이나 노인자신의 과거의 업보나 잘못때문에, 또는 가정교육을 잘못시켜서 등으로 노인홀대가 발생한다고 지각하였다.

또한 노인들은 “노인에 대한 인식이나 배려 부족”, “존경심 부족” 등 노인에 대한 이해와 공경심 부족이 노인홀대를 야기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부양자녀의 여건부족이 노인홀대를 유발한다고 보는 빈도도 높았는데,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하여”, “생활고 때문에”, “각자의 생활이 바빠서” 등과 같은 이유로 홀대가 일어난다고 지각하였다. 이외 부모에 대한 부담이나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려는 생각때문에” 등과 같은 자녀의 이기주의적 측면에서도 노인홀대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노인들은 부모자녀 상호간의 이해 부족과

〈표 7〉 노인의 노인홀대 원인 인식(개방형 질문 분석)

		N(%)
노인 측면	성격적 특성	9
	무능력	39
	과거의 잘못	6
	가정교육의 부족	6
계		60(36.6)
부양자 측면	부양부담	6
	이기주의	8
	노인에 대한 이해와 공경심 부족	21
	부양자의 여건 부족	13
	기타	0
계		47(28.7)
관계적 측면	상호이해 부족	4
	낮은 관계의 질	3
	세대차이	5
	의견 및 성격차이	2
	대화 부족	2
계		16(9.7)
사회구 조적인 측면	핵가족화	2
	개인주의 및 이기주의화	8
	배금사상	1
	전통윤리의 쇠퇴	11
	전반적 사회의 변화	16
	기타	3
	계	41(25.0)
총계		164(100.0)

* 사례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복수응답을 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세대간 또는 고부간 관계의 질이 낮아서 그리고 세대차이나 의견 및 성격차이, 대화부족 등이 원인이 되어 홀대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전반적인 사회의 변화때문에, 전통윤리가 쇠퇴해서, 사회가 개인주의화 이기주의화 해서, 핵가족화로 인해”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노인홀대가 발생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2. 노인의 홀대 경험에 대한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노인들의 노인홀대 경험에 대한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와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변인 중 성별, 동거여부 등 명목변수들

〈표 8〉 노인의 노인홀대 경험에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변인	b	β	Partial R ²
가족의 지지도	-.2238	-.467	.415
가족관계만족도	-.780	-.283	.074
자녀와의 접촉정도	-.2164	-.134	.016
회귀상수		79.267	
R ²		.505	
F		45.472***	

*** p<.001

은 가변수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노인의 홀대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의 지지도, 가족관계 만족도, 자녀와의 접촉정도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51%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족의 지지도는 42%의 설명력을 나타내 노인홀대 경험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가족의 지지도가 높을수록 노인이 홀대를 덜 경험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설명력은 낮지만 노인이 가족관계에 만족할수록, 그리고 자녀와의 접촉 정도가 많을수록 노인의 홀대경험이 낮아짐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가족 지지도를 높이고 가족관계 만족도를 증가시키며, 자녀와의 접촉적 결속을 증가시키는 것은 노인의 홀대를 예방하는 일이 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의 노인홀대의 인식과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그 관련 요인들을 규명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노인홀대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16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로 노인이 지각하는 노인홀대의 개념은

심리적 홀대로 나타난다. 그 중 심리적 방임이 보다 많으며(36.7%), 다음은 심리적 학대(22.6%)로 나타난다. 즉 조사대상 노인의 59.3%가 소외나 무시, 무관심, 인격적 모독 및 불공손, 정신적 불편감 및 대화단절, 언어적 폭력의 심리적 측면에서의 홀대를 노인홀대로 지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학대보다는 방임을 노인홀대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혼 성인남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혼 성인남녀와 노인이 지각하는 노인홀대는 대체로 일반적 방임의 형태와 심리적 학대(기혼 성인남녀 약 85%, 노인 83% 정도)로 볼 수 있다. 특히 방임의 한 측면에서 기혼 성인남녀가 노인에게에 무관심한 것을 노인홀대로 지각하고 있는 것에 비해 노인은 자녀가 무시하는 것을 홀대로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노인과 성인자녀간에 지각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성인자녀의 일상적인 무관심이 노인에게는 무시로 여겨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노인의 홀대경험은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노인은 기혼 성인남녀보다는 홀대경험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신체적 학대 및 유기 경험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고 기혼남녀와 마찬가지로 심리적 방임이나 신체적 방임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기혼 성인남녀와 노인 모두 심리적 방임과 신체적 방임을 노인홀대로 지각하고 있으며 실제 경험에서 볼 때 방임의 측면에서는 홀대경험이 있음을 지각하고 있다. 가정내 노인홀대는 강도 높은 폭력과 학대보다는 방임과 많은 관련이 있다(Johnson, 1995). 이는 우리사회에서도 가정내의 노인홀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뜻한다. 부양자나 노인 모두의 상황적 여건에 따라 현재의 노인홀대 사건은 언제든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사회에서도 노인홀대에 대한 예방적 대책과 실질적인 노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홀대의 원인을 살펴 보면, 노인자신의 측면에서 홀대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노인들은 36.6%로 나타나며, 부양자 측면에서는 28.7%,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는 25.0%, 관계

적 측면에서는 9.7%로 나타나고 있다. 즉 노인들은 홀대가 노인들 자신의 무능력과 같은 자기 탓으로 발생한다고 느끼는 경향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상대를 비난하여 책임을 회피하기 보다는 원인을 자신에게 돌려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할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그러나 일방적인 자기 탓에 빠져있는 노인은 무조건 홀대 상황을 감수하고 인내함으로써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학대 상황에 직면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노인이 홀대상황을 자기 탓으로 귀인시켜 적극적인 환경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홀대상황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위험이 있음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노인들은 부양자의 특성이나 사회구조적인 면에서 노인학대와 방임의 원인이 있다고 지각하고 있다. 즉 부양자의 노인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부양자의 여건 부족, 사회변화나 전통윤리의 쇠퇴 등이 노인홀대를 야기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노인과 부양가족이 서로간의 이해와 부양상황에 대한 인식을 도모하고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응을 높이는 것이 노인의 홀대경험을 낮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둘째, 개인적, 관계적 변인들에 따른 노인홀대 경험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 가족지지도, 가족관계만족도, 자녀와의 접촉정도가 관련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즉 노인의 가족 지지도가 높을수록, 가족원과의 관계가 만족스러울수록 그리고 자녀와의 접촉정도가 많을수록 노인의 홀대 경험이 낮음을 볼 수 있다. 특히 가족지지도는 노인의 홀대경험과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홀대를 예방을 위해서는 노인의 가족간 지지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인과 부양가족간의 지지도와 유대감은 노년기에 와서 갑자기 증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과 가족이 생애주기 동안 갈등과 차이를 극복하고 친밀감을 형성해 나갈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과 부양가족이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간의 신뢰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가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개인적 노력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노년기 교육이나 노년기 가족관계 증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개입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전문적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가정내에서 노인이 홀대 상황에 능동적으로 직면하도록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무능력의 위험요소를 낮추고 보완해 줄 수 있는 노령연금이나 가정봉사원제도, 노인복지상담과 같은 사회 복지적 지원의 제공과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충분한 표집대상을 선정하지 못했고 노인과 주부양자인 성인자녀를 쌍(pair)으로 조사하지 못해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했다는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분명한 홀대에 대한 개념 규정없이 학대받는 일부 노인에 국한하거나 2차적 자료를 바탕으로 홀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인이 생각하고 있는 노인홀대 인식과 경험에 대한 개념규정을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노인홀대 경향을 파악하였으며, 노인홀대 인식과 경험에 관련된 변인들을 탐색해 봄으로써 노인홀대 예방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집에서 앞으로의 연구는 노인홀대에 대한 이론과 개념, 관련변수들의 탐색이 더욱 요구되며, 특히 은폐성향이 높은 노인홀대를 보다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질적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정현(1995), 가족지지가 남자노인의 은퇴 스트레스와 은퇴 후 적응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김한근·Bernard E. Blakely(1994),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경향과 과제, 영남대 인문연구 제 15집 2호, 209~227.
- 3) 서혜경(1995), 노인학대의 실태와 법의 필요성.

- 가정폭력방지법 전문가 워크샵 8~62.
- 4) 송현애(1993). 며느리의 시부모 부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이영미(1995). 성역할 정체감, 사회적 지지 및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이영숙(1997). 고부관계에서 발생한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35권 2호, 359~371.
 - 7) 이해영(1996). 새로운 복지문제로서의 노인학대에 대한 고찰. 노인복지 정책연구 제 3호, 299~326.
 - 8) 전길양(1993). 노모와 성인딸간의 상호작용과 부양기대감,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9) 최해경(1993).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과 원조요청 태도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논문집 제 22집, 273~286.
 - 10) 통계청(1996). 장래인구추계.
 - 11) 한동희(1996).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 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 노인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 13) Canadian Task Force on the Periodic Health Examination(1994). Periodic health examination, 1994 update:4, Secondary prevention of elder abuse mistreatment,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151, 1413~1420.
 - 14) Douglas, R. Hickey, T. Noel, C.(1980). A study of Maltreatment of the elderly and the vulnerable adults. The Institute of Gerontology, University of Michigan.
 - 15) Hwalek, M.A., Neale, A.V., Goodrich, C.S., & Quinn, K.(1996). The association of elder abuse and substance abuse in the illinois elder abuse system. The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36(5), 694~700.
 - 16) Johnson, I.M.(1995). Family members' perceptions of and attitudes toward elder abuse.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April), 220~229.
 - 17) Korsberg, J.I.(1988). Preventing elder abuse : Identification of high risk factors prior to placement decisions. The Gerontologist 28(1), 43~50.
 - 18) Lau, E. & Kosberg, J.(1979). Abuse of the elderly by informal care providers, Aging 302, 10~15.
 - 19) Lustbader, W. & Hooyman, N.R.(1994). Taking care of aging family members. Newyork:Free Press.
 - 20) Moon, A & Williams, O.(1993). Perceptions of elder abuse and help-seeking patterns among African-American, Caucasion American, and Korean-American elderly woman. The Gerontologist 33(4), 386~395.
 - 21) National Center on Elder Abuse(1997). What is Elder Abuse?. USA.
 - 22) Neale, A.V. et al.(1996). The Illinois elder abuse system : Program description and administrative findings. The Gerontologist 36(4), 502~511.
 - 23) Pillemer, K. & Finkelher, D.(1988). The Prevalence of elder abuse: A random sample survey. The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28(1), 51~57.
 - 24) Pillemer, K.(1993). The abused offspring are dependent : Abuse is caused by the deviance and dependence of abusive caregivers, in Current Controversies on Family Violence, (ed.) R. Gelles & D. Loseke, Sage Publications Inc, 222~236.
 - 25) Pillemer, K. & Moore, D.(1989). Abuse of patients in Nursing home: Findings from a survey of staff. The Gerontologist, Vol. 29, No. 3, 314~320.
 - 26) Quinn, M.J. & Tornita, S.K.(1986). Elder abuse and neglect:Causes, diagnosi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Newyork:Springer Publishing Company.
 - 27) Rosenblatt, D.(1997). Geriatric Gems. The Geriatrics Center, University of Michigan. Seelbach, W.(1978). Correlates of aged parents' filial

- responsibility expectations and realizations, *The Family Coordinator*, 27, 341~350.
- 28) Shifferaw, B. et al.(1994). The investigation and outcome of reported cases of elder abuse : The Forsyth County Aging Study. *The Gerontologist* 34(1), 123~125.
- 29) Steinmetz, S. (1993). The abused elderly are dependent: Abuse is caused by the perception of stress associated with providing care, in *Current Controversies on Family Violence*, (ed.) R. Gelles & D. Loseke, Sage Publications Inc. 237~249.